

해저드리터러시 융합교육연구소

해저드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SNS 속 재난 정보,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전할까?



1. 수업 프로그램 설명

본 프로그램은 재난 상황에서 확산되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개인의 분별력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정보 접근성·미디어 환경·사회적 신뢰 구조가 결합된 복합 재난, 곧 정보 재난(infodemic)으로 이해하도록 설계한 재해재난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재난 초기에 미확인 정보라도 빠르게 공유해야 하는가, 검증될 때까지 멈춰야 하는가'처럼 정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쟁점을 다루며, 학습자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SIFT 4단계로 실제 재난 정보를 검증한 뒤, 하나의 쟁점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이고 이어서 입장을 바꾸어 다시 토론한다. 두 입장을 모두 겪은 모둠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정보 격차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심화되는지를 이해하고, 재해·재난 정의(disaster justice)의 관점에서 정보의 공정한 분배와 책임 있는 소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수업 대상	중·고등학생	교육 방법	강의, 사례 분석, 팩트체크 실습,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모둠 합의
운영 장소	일반 교실(모둠 활동이 가능한 공간)	수업 시간	총 150분(50분 × 3차시)
준비물	활동지, 필기도구, 모둠당 1대 이상의 스마트기기, 다큐드라마 「소셜 딜레마」(2020, Netflix) 클립, 2025년 3월 경북(의성발) 산불 관련 허위정보·팩트체크 보도 자료, 2025년 1월 미국 LA 산불 AI 생성 이미지 검증 사례(Snopes·Full Fact 등), SNU팩트체크 아카이브(factcheck.snu.ac.kr) 화면, 정보 검증 4단계(SIFT) 가이드, 토론 입론·반박 양식, PPT / 선택 자료: 영화 「돈 룩 업」(2021) 클립		

2. 교육 프로그램 목표(해저드리터러시 연계)

① 재난 상황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재난 정보 사례를 비교하여, 동일한 재난 상황에서도 정보 접근성·미디어 환경·사회적 조건에 따라 정보 피해가 다르게 나타남을 분석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쟁점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각각 토론(입론·반박·최종 발언)하고, 입장을 바꾸어 다시 토론할 수 있다.

④ 두 입장을 모두 겪은 뒤, 정보의 공정한 분배와 책임 있는 소통을 담은 모둠 합의안을 재해·재난 정의 관점에서 도출할 수 있다.

목표	지식·이해		사고·기능					가치·태도			심리·정서			행동·실천		
	A1	A2	B1	B2	B3	B4	B5	C1	C2	C3	D1	D2	D3	E1	E2	E3
목표①	O	O		O												
목표②		O		O	O				O							
목표③						O	O	O				O				
목표④							O		O	O				O		O

3. 핵심 개념

· 재난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구조
· 허위 정보(misinformation)와 의도적 조작 정보(disinformation)의 차이
· 정보 재난(infodemic)의 발생 원리와 사회적 영향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와 정보 취약 계층
· 팩트체크의 기준과 SIFT 4단계(Stop·Investigate·Find·Trace)
· 생성형 AI가 만든 재난 이미지·영상의 특징과 판별 단서(워터마크, 시각적 오류 등)
· 쟁점의 다면성: 신속성과 정확성,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긴장

4. 프로그램 전개

활동의 전개	
도입	·재난 상황 허위 정보 뉴스·SNS 사례를 제시하여 관심을 유도한다. ·"재난 정보,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전해야 할까?"라는 정답 없는 질문을 제시한다. ·같은 쟁점에 찬성·반대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활동1	·허위 정보 확산의 원인(공포·불확실성·알고리즘·플랫폼 구조)과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SIFT 4단계로 실제 재난 SNS 정보(2025년 경북 산불·LA 산불 사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를 실습한다(교사 시연 1건 + 모둠 실습 1건). AI 생성 이미지의 판별 단서를 함께 다룬다. ·정보 취약 페르소나 활동으로 같은 정보가 사람마다 다르게 닿음을 확인한다. ·활동에서 출발하여 찬반이 팽팽한 토론 논제를 한 문장으로 확정한다. ·각자 1차 입장을 정해 둔다(2차시에 입장을 바꿈을 예고한다).
활동2	·논제를 확인하고 읽기 자료를 분석하여 팀 입장과 근거를 정리한다(1단계). · 1차 토론을 '입론 → 반박 → 최종 발언' 순서로 진행하고, 상대 팀 주장·근거를 기록한다(2단계). ·1차 토론에서 오간 주장과 근거를 모둠별로 정리하고, 다음 차시에 입장을 바꾸어 토론함을 예고한다.
활동3	·반박 체크리스트로 상대 주장을 점검한 뒤 1차와 반대 입장으로 자리를 바꾼다(3단계). ·바뀐 입장에서 2차 토론을 진행한다(4단계).
정리	·두 입장을 모두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정보 공유 3원칙' 모둠 합의안을 도출하며, 합의안에 정보 취약 계층 보호 방안을 포함한다(5단계). ·모둠 합의안을 발표·공유하고, 재해·재난 정의 관점에서 정보 취약 계층 보호의 의미를 정리한다.

5. 재해·재난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활동 사례

현대 사회의 재난은 자연 현상이나 기술적 사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난 상황에서 SNS와 메신저로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 정보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재난, 곧 정보 재난(infodemic)으로 작동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 팬데믹 과정에서 정보 과잉과 허위 정보의 확산이 공중 보건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포데믹'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et al., 2020). Wardle와 Derakhshan(2017)은 정보 무질서(information disorder)를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malinformation으로 구분하여 정보 재난을 이해하는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보 재난은 최근 사례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2025년 3월 의성에서 발생하여 경북 북부를 휩쓴 초대형 산불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화 배후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확산되었고, 같은 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에서는 할리우드 사인이 불타는 생성형 AI 이미지·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하루 만에 수십만~백만 회 이상 조회되며 혼란을 키웠다. 두 사례는 동일한 유형의 재난에서도 미디어 환경과 플랫폼 구조에 따라 허위 정보의 양상이 달라짐을 보여 주며, 본 프로그램의 국내외 비교 분석(목표 ②) 자료로 활용된다.

동일한 재난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사용 플랫폼, 사회적 관계망, 디지털 접근성에 따라 사람들이 받는 정보의 질이 달라지고, 이 차이는 재난 피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2025년 경북 산불의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자였고 풍향 변화로 대피 장소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정보 전달의 격차가 피해로 직결되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 준다.

특히 고령자, 다문화 가정, 디지털 취약 계층은 공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허위 정보 피해에 더 취약하다. 이러한 격차는 분배적·절차적·상호작용적 정의를 포괄하는 사회정의 틀(Lukasiewicz & Baldwin, 2017)을 재난 정보 맥락에 적용한 재해·재난 정의(disaster justice)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보 검증 활동에는 Caulfield(2019)가 제안한 SIFT 4단계(Stop, Investigate the source, Find better coverage, Trace to original)를 도입하였다. SIFT는 점검 항목의 암기가 아니라 짧고 반복 가능한 행동 절차를 훈련한다는 점에서 중등 학습자에게 적합하다.

그런데 '재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정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다. 신속성과 정확성,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 종종 충돌하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쟁점을 서울특별시교육청(2023)의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모형으로 다룬다. 프로그램은 ① 1차시(「소셜 딜레마」 클립, 2025년 경북 산불·LA 산불 허위정보 사례 분석과 SIFT 4단계 실습을 통한 인지, 쟁점 확정), ② 2차시(쟁점 파악·1차 자료 분석 - 1차 토론), ③ 3차시(2차 자료 분석·입장 교체 - 2차 토론 - 모둠 합의안)의 세 단계로 구성한다. 2·3차시의 토론은 '쟁점 파악·1차 자료 분석 - 1차 토론(찬반) - 2차 자료 분석·입장 교체 - 2차 토론(입장 바꾸어) - 모둠 합의안'의 5단계로 이어진다. 학습자는 찬성과 반대를 모두 경험한 뒤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며, 그 안에 정보 취약 계층 보호를 담는다.

6. 지도상 유의점

- 토론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공존의 합의를 찾는 것'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한다.
- 찬/반 배정은 학생의 실제 신념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입장 교체를 통해 '반대편의 합리성'을 경험하는 것이 핵심임을 안내한다.
- 2025년 경북 산불처럼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실제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자극적 이미지·영상을 배제하고 텍스트 중심의 팩트체크 자료를 사용하며, 희생자와 이재민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전에 약속한다. 피해 지역 학생이나 관련 경험이 있는 학생을 고려하여, 불편함을 느끼면 국외 사례(LA 산불 등)로 대체하여 활동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SNU팩트체크(factcheck.snu.ac.kr)는 2024년 8월부터 무기한 휴지 상태로 신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존 검증문을 읽기 전용 아카이브로 제공한다. 실시간 검증 도구가 아니라 축적된 검증 사례를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하고, 최신 사례는 언론사 팩트체크 코너와 국제 팩트체크 기관(Snopes, Full Fact, AFP 팩트체크 등)의 자료로 보완한다.
- 허위 정보 확산의 원인을 '개인의 무지'나 '특정 세대의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도록 하고, 알고리즘·정보 환경·사회적 신뢰 구조가 함께 작용함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토론 예시로 자극적 표현이나 특정 인물·집단을 풍자·조롱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러한 표현은 학급 내에서만 다루고 폐기하도록 사전 안내한다.
- 팩트체크는 특정 매체·진영에 대한 일방적 비판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출처 확인·근거 검증·교차 확인 등 일반적 기준을 강조한다.
- 개인 스마트폰 활동(알고리즘 거울)은 자기 계정 화면이 노출되는 활동이므로, 보여 주고 싶은 범위만 공유하도록 안내하고 미소지 학생을 위해 모둠 공용 기기를 준비한다.
- 영상 저작물(「소셜 딜레마」 등)은 수업 목적상 필요한 최소 분량의 클립만 활용하고, 관련 법령과 학교의 저작물 이용 지침을 준수한다.
- 합의안에는 정보 취약 계층 보호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안내하여, 재해·재난 정의 관점이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7.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평행선이 서로를 만나는 순간 (발간등록번호 서울교육 2023-119). 서울특별시교육청.
- Caulfield, M. (2019, June 19). SIFT (The four moves). Hapgood. https://hapgood.us/2019/06/19/sift-the-four-moves/
- Lukasiewicz, A., & Baldwin, C. (2017). Voice, power, and history: Ensuring social justice for all stakeholders in water decision-making. Local Environment, 22(9), 1042-1060. https://doi.org/10.1080/13549839.2014.942261
- Wardle, C., & Derakhshan, H. (2017). Information disorder: Toward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 making (Council of Europe Report DGI(2017)09). Council of Europe.
-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ted Nations, UNICEF, UNDP, UNESCO, UNAIDS, ITU, UN Global Pulse, & IFRC. (2020, September 23). Managing the COVID-19 infodemic: Promoting healthy behaviours and mitigating the harm from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Joint statement]. https://www.who.int/news/item/23-09-2020-managing-the-covid-19-infodemic-promoting-healthy-behaviours-and-mitigating-the-harm-from-misinformation-and-disinformation



1차시: SNS 속 재난 정보, 믿어도 될까?

주제	재난 정보의 신뢰성과 팩트체크, 그리고 쟁점 발굴
무엇을 배울까요?	①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② SIFT 4단계로 재난 정보를 검증하고, 토론을 위한 쟁점과 나의 1차 입장을 정한다.

1 생각해보기

- 재난 상황에서 SNS로 퍼진 '가짜 정보' 사례 영상·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혼란에 놓였는지, 그 장면에서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2 재난 정보, 왜 문제일까

- 재난 상황에서 허위 정보는 왜 빠르게 퍼질까요? 공포·불확실성·알고리즘·플랫폼 구조 등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생각해봅시다.

3 알고리즘 거울 — 내 피드 vs 친구 피드

- 다큐「소셜 딜레마」(2020)를 본 뒤, 모둠원이 각자(또는 공용 기기에서) '재난' 검색 추천 3개를 비교합시다. 같은 단어인데 추천이 다른 까닭을 적어봅시다.

4 SIFT 4단계로 검증하기

- 2025년 경북 산불·LA 산불 관련 재난 SNS 정보 1건을 골라 SIFT 4단계를 적용해봅시다. 이미지·영상이면 AI 생성 흔적(워터마크·글자 오류·부자연스러운 세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단계	확인 내용
Stop(멈추기)	
Investigate(출처 확인)	
Find(더 나은 자료 찾기)	
Trace(원문 추적)	

5 세 사람의 하루 — 정보 취약 인물 되어 보기

- 같은 재난 속보(2025년 경북 산불처럼 풍향이 바뀌어 대피 장소가 실시간 변경되는 상황)를 세 사람이 받습니다. 한 명이 되어, 그 사람의 처지에서 1인칭으로 적어봅시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	문자가 어려운 고령자
정보 접근은 빠르지만 무엇이 진짜인지 가리기 어렵다	속보·안내문의 한국어를 즉시 이해하기 어렵다	스마트폰 알림·대피 문자를 놓치기 쉽다 (실제 이 산불 사망자 대부분 고령자)

1) 내가 맡은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한 정보는 무엇이고, 실제로 받았는가?

2)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위험했는지 모둠에서 정하고 이유를 쓰자.

6 쟁점 세우기 + 나의 1차 입장

- 찬반이 팽팽한 토론 논제를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예: "재난 발생 직후, 공식 확인 전이라도 위험 정보는 빠르게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나의 입장을 정해 둡니다(2·3차시에 바꿔 보게 됩니다).

우리 반 토론 논제	나의 1차 입장 (찬성 / 반대) + 까닭

2차시: 쟁점을 세우고 맞서기 — 1차 토론

주제	쟁점 파악·1차 자료 분석 → 1차 토론(찬반)
무엇을 배울까요?	① 토론 논제를 이해하고 읽기 자료를 근거로 우리 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② 입론·반박·최종 발언의 순서로 근거를 들어 토론할 수 있다.

1 쟁점 파악·1차 자료 분석

- 1차시 논제를 적고, 읽기 자료(2025년 경북 산불·LA 산불 허위정보 팩트체크 사례 등)를 요약한 뒤 우리 팀 입장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구분	내용
토론 논제	
우리 팀 입장	(찬성 / 반대)
주장과 근거 (자료 인용 포함)	

2 1차 토론 — 찬반 논쟁

- 입론 → 반박 → 최종 발언 순서로 진행하고, 상대 팀의 주장·근거를 기록하며 반박을 정리합니다.

구분	상대 팀 주요 주장	그 근거	우리의 반박
1			
2			
3			

3차시: 입장을 바꿔 서보기 — 2차 토론과 합의

주제	입장 교체 → 2차 토론 → 모둠 합의안
무엇을 배울까요?	① 1차와 반대 입장으로 자리를 바꾸어 다시 토론할 수 있다. ② 두 입장을 겪은 뒤 정보 취약 계층 보호를 담은 모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3 2차 자료 분석·입장 교체

- 아래 체크리스트로 상대 주장을 점검한 뒤, 1차와 반대 입장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반박 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상대 팀이 용어를 바르게 사용했는가?	
상대 팀의 근거가 충분하고 출처가 분명한가?	
상대 팀 주장에 모순·과장은 없는가?	
상대 팀 주장이 정보 취약 계층까지 고려하는가?	

우리 팀의 바뀐 입장: (찬성 / 반대)

4 2차 토론 — 입장 바꾸어 논쟁하기

- 바뀐 입장에서 다시 입론·반박·최종 발언을 합니다. 두 입장을 모두 겪어 보니 처음 생각에서 달라진 점을 적어봅시다.

구분	(바뀐 입장) 우리 팀 주요 주장	상대 팀을 반박할 내용
1		
2		

5 모둠 합의안 — 재난 정보 공유 3원칙

- 승패가 아니라, 찬성·반대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난 정보 공유 3원칙'을 합의해 적습니다.

구분	우리 모둠의 합의 원칙
원칙 1 (정보를 '멈출' 기준)	
원칙 2 (정보를 '전할' 기준)	
원칙 3 (정보 취약 계층을 '보호할' 방법)	

6 재해·재난 정의 관점에서 정리하기

재해·재난 정의(Disaster justice): 재난 피해는 모두에게 똑같지 않고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더 취약한 사람을 우선 보호하려는 관점.

우리 합의안이 가장 보호하려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